

석사학위논문

이기풍 목사의 선교와 신학 :
제주선교를 중심으로

2015년 2월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목회신학과

김 창 현

이기풍 목사의 선교와 신학 :
제주선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영 근

이 논문을 석사학위(Th. M.)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목회신학과

김 창 현

김 창현의 석사 학위 논문을 확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15년 2월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연구사 -----	3
II. 이기풍목사의 출생과 회심 그리고 신학훈련 -----	5
1. 출생과 사회적인 상황 -----	5
1) 이기풍 목사의 출생 -----	5
2) 이기풍 목사 출생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	6
2. 마뻬 선교사와의 만남과 회심 -----	7
3. 김구 선생과의 관계 -----	11
III. 제주선교 준비과정과 배경 -----	13
1.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1907-1912)의 설립배경 -----	13
2. 제주선교 결정과 선교사로서 이기풍 목사의 임명 -----	18
1) 제주 선교사로 지원한 동기 -----	19
2) 제주도 선교사 파송의 배경과 숨은 조력자 -----	20
3) 제주도 선교사 파송의 의미 -----	22
IV.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선교 -----	25
1. 이기풍 선교사의 제1차 제주선교 (1908-1915) -----	25
1) 제주선교의 첫 사역 -----	25
2) 제주선교의 초기 결실들 -----	27
3) 제주선교 전라노회에 이전 -----	38
4) 이기풍 선교사 제1차 제주선교의 의의 -----	39
2. 이기풍 목사의 제2차 제주목회 (1927-1931) -----	41
1) 재부임 배경과 목회활동 -----	41
2) 성내교회와 제주도 선교 -----	43

3.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 1, 2차 활동 비교 -----	46
4. 이기풍 목사의 선교와 신학 -----	47
V.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 선교에 대한 평가 -----	52
1. 제주선교에 나타난 부정적인 평가 -----	52
1) 준비가 없는 선교 -----	52
2) 제주도에 대한 문화이해 부족 -----	53
3) 교회의 사회 참여 부족 -----	54
2. 제주선교에 나타난 긍정적인 평가 -----	56
1) 독립된 제주노회로 성장 -----	56
2) 희생적인 선교의 본 -----	56
3) 하나님 선교로의 성장 -----	57
4) 자생적 교회로서의 모델 -----	58
VI. 결 론 -----	59
참고문헌 -----	62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교회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지금 한국교회의 현상만을 놓고 보면 매우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미국 타임지가 “2013년 올해의 인물” 또 미국의 포춘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한국방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한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급한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2천년 역사상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많은 서구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또 그들의 순교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함께 기이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역사 뒤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다.

그러나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문화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교회성장은 그만두고라도 교회성장을 후퇴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성장이 절실한 때이다. 교회성장이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한국교회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교역자들의 지적 능력과 테크닉은 그 어느 때보다 월등하지만 주님에 대한 헌신도와 영성은 그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교회성장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로 심령이 향할 때에 가능하다. 선교를 힘쓰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주장들은 우리들이 심심찮게 들어왔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선교에 헌신하였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1월 30일까지 한국교회는 약 22,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교회의 영적성장과 부흥의 증표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구 교회들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였음에도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한국교회에 깨닫게 하는 바가

크다. 선교에 힘써야 하지만 선교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다 가진 자로서 구원의 복을 온 인류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자로 살아가는 개혁과 갱신이 필요하며, 축복함으로 내가 개혁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한국교회는 선교와 신학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열정과 희생적인 삶으로 독노회 파송 첫 선교사인 이기풍 선교사를 그 모델로 삼아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외국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의 결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를 조직하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을 목사를 장립하고 그 중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자립적인 선교의 시작이며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작이었다.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국 장로교회가 최초의 독립적인 독노회를 조직하고 또 제주선교 사역의 핵심인 이기풍선교사를 보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소망하며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 한국. 여기에 뿌려진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도와 열정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고, 제주도에 뿌려진 이기풍 목사의 열정과 헌신은 불모지인 제주도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또한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 열정은 곧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부흥으로 이어 질 것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힘차게 흐르게 하여 역사를 빛내고 큰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사

한국의 기독교 전파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기풍 목사에 대해 논했지만 다만 한국장로교회 선교사 파송과 제주선교의 결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비전과 열정, 헌신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아브라함병옥의 『선교방법론으로 본 이기풍의 선교평가』(2009)는 한국교회 역사를 상황화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만을 제시하였다.¹⁾ 이 논문은 폴 히버트와 찰스 크래프트가 주장한 상황화 이론을 택하고, 그들의 이론으로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에 적용함으로써 제주 선교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만을 밝힘으로써 인간적인 이기풍 목사를 이해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또 박인환의 논문 『이기풍 선교사의 리더십 연구』(2002)는 이기풍 목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전 생애를 6단계로 나누어 살핌으로 선구자로서 리더십 롤 모델을 제시했다.²⁾ 이 논문은 리더십 연구의 한계를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제주 현지인과 교단과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전개시킴으로서 이기풍 목사의 세계관 그리고 선교행정과 전략으로의 접근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박정환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2012)는 제주도 개신교의 자생적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성장하였는지 그 원형의 공간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했다.³⁾ 여기서는 제주도 사람들의 토착문화전통을 이해하고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제주도 지역교회사를 서술하는데 연구방법론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헌신적인 수고 그리고 이기풍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1) 아브라함병옥, “선교문화방법론으로 본 이기풍의 선교 평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2009)

2) 박인환, “이기풍 선교사의 리더십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2)

3)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1904-1930”,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기타 여러 학위논문들도 대부분 선교 전략적 차원, 제주 지역에 미친 영향, 그리고 리더십의 연구로 이기풍 목사에 대해 논했지만 여기서는 다른 논문에서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이기풍 목사의 신학과 선교를 통해 그의 신학과 제주선교방법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기풍 신학은 철저한 내세지향적인 신학이며 그의 선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영혼구원에 있었다. 이러한 신학과 선교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기대한다. 본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사료들을 가지고 분석하여 밝히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이기풍 목사의 회심과 신학훈련, 그리고 마펏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부르심 받은 사람 이기풍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신학훈련을 받았는가를 추적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독노회 설립 배경과 제주선교 결정과정 그리고 이기풍을 통하여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과정을 통해 소명자의 헌신적인 삶과 한국인의 진취적인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독노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결정하고 제주선교를 감당한 이기풍 목사의 사역들을 통해 선교사, 후원교회와 노회, 그리고 현지교회의 역동적인 유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팀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선교는 인간구원과 사회구원이라는 두 축을 겸비해야 함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선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기풍 목사의 출생과 회심 그리고 신학훈련

1. 출생과 사회적인 상황

1) 이기풍 목사의 출생

이기풍 목사의 출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은 막내 딸 이사례 권사가 쓴 『순예보』가 널리 인정되어 왔었다. 그 책에서 아버지의 출생을 증조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홍경래의 난에 동조하였던 지방 관리로 그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기풍 목사의 할아버지는 홍경래 난을 지지함으로써 역적으로 몰리게 되자 황해도 구원산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전하다가 아버지대에 이르러 평양성 대동 강변으로 이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기풍 목사가 친필로 쓴 가족의 족보에는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기풍 목사의 할아버지는 무관 출신으로 오위장(五衛裝)을 역임한 이춘배(李春培)이며, 이춘배는 아들 셋(경진, 제진, 재진)을 두었으며 둘째 제진은 외아들 기풍(基豐)을 두었다.⁴⁾

따라서 이기풍 목사의 가문은 무반 가문에 속하였으며 할아버지는 정삼품인 오위장을 역임하였다. 아마도 이기풍 목사의 호방한 성격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끈질긴 집념은 가문의 내력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기풍 목사의 출생에 대해서는 딸 이사례 권사는 1865년 12월 23이라고 기록하였지만 호적과 교회관련 자료와 기타의 자료들을 통해 정확하게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적에는 출생을 명치 원년(1868년) 11월 21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 이제진, 모 김씨

둘째, 이기풍 목사의 회갑 기념예배가 1928년 제주도 성안교회에서 거행하였으므로 그의 출생은 1868년이다.

4) 차중순, “이기풍목사의 생애와 사역/ 초기의 논란 점을 중심으로”, 『신학이해』 15 (1997.9), 220.

셋째, 한국교회 회년기념 설교집(1935년도 발행)은 이기풍 목사의 약사를 기록하면서 생년월일을 1868년 평양부 순영리 출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이기풍 목사의 출생일은 1865년 12월23일이 아니라 1868년 11월21일로 확정지을 수 있다.⁵⁾

2) 이기풍 목사 출생 당시 사회적인 상황

일찍이 조선에 도착하였던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 왕조의 마지막을 앞당기는 두 가지 요소를 관료들의 부패와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도의 문란을 지적했다. 조선조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관료의 인재등용을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파는 매관매직 행위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관직을 얻은 사람은 또 다시 백성들로부터 그 금액을 갈취하는 악순환이 증폭되어 갔다.⁶⁾ 당시 하위직 관료들은 아예 급료가 없었기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를 격분한 지역 주민들은 협력하여 지방관을 내 쫓기도 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정, 부패, 착취와 억압이 해결되지 못했다. 이제 백성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은 혁명과 민란이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였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이들은 내세지향주의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서로의 다른 역할로 인해 분쟁과 각종 난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가는데, 흉년이 들면 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세징수 독촉이 끊이지 않았다. 관료제도에 대한 반감은 결국 민란으로 비화되었다. 1811년의 홍경래의 난, 1862년의 진주민란, 1868년의 정덕기 반란, 1869년의 광양민란, 고성주민의 현감 살해사건, 1871년의 이필제의 조령반란, 1872년의 제주도 오윤근 반란, 안동 유흥락 반란 등 전국적으로 관리들을 축출시키는 민란들이 발생하였다.⁷⁾

5) 위의 책, 221.

6) 차중순, “이기풍목사의 생애와 사역”, 216에서 재인용.

이런 시대상황에서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여 백성들의 삶은 날로 도탄에 빠졌지만 정부는 그 어떤 방법조차 내지를 못했다. 이런 시대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이기풍 목사도 이런 시기에 태어났다. 어쩌면 이기풍 목사의 성격과 신앙형성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마펏 선교사와의 만남과 회심

이기풍 목사는 1865년 12월23일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자와 높은 벼슬을 가진 고관대작들을 몹시 증오했으며 성격이 과격하고 싸움과 술을 좋아해서 청년시절 평양에서 유명한 폭력배로 널리 알려질 정도였다. 그 때의 일화를 통해 그가 벼슬아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다.⁸⁾

어느 날 이기풍은 술에 취해서 평양성을 걷고 있었는데 마침 평양 좌수사 행렬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 행동과 행렬이 이기풍의 눈에는 거만과 위세로 보여 그 꼴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는 지나가는 행렬에 돌진하여 좌수사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쳐 땅바닥에 떨어트렸다. 이처럼 이기풍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형무소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권세 있는 기득권층에 대해 반감을 억제하지 못해 한 때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16세 때 이미 사서삼경을 외우고, 백일장에서 장원할 정도로 학문에는 재능이 있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기독교와 선교사를 박해했다는 것은 흔히 젊은 시절의 혈기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한학을 공부한 폐쇄적인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젊은 이기풍도 한학 공부를 통해 척사위정(斥邪衛正)⁹⁾ 사상에 동조하여 배외(排外)적인 쇄국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이 넓게는 기독교를 서양 오랑캐의 종교로 보고 그것을 배척했고, 좁게는 서양선교사

7) 차중순, “이기풍목사의 생애와 사역/ 초기의 논란 점을 중심으로”, 『신학이해』 15(1997.9), 219.

8) 한경호,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 (서울: 지상사, 2009), 128.

9) 위정척사운동은 정학과 정도인 성리학을 지키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척하는 운동으로 보수적 양반 유생인 이항로, 기정진이 주도하였다. 이 운동은 외세의 침략성을 파악하고 반침략, 반외세의 자주운동을 추구하였으나 봉건적 체제유지를 목적이었으므로 근대시민 사회형성을 지연시켰다.

에게 박해를 가하게 했던 것이다.¹⁰⁾

이기풍 목사가 회심 전에 가졌던 직업에 대해서는 1936년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t) 선교사가 자신의 은퇴 후 행적을 더듬으면서 연재했던 《초기 시절》 Early Days이라는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1891-1893 사이에 저자(마포삼열), 게일(J. S. Gale, 기일), 홀(E. F. Hall), 그리고 리(G. Lee) 등은 평양에 선교부를 개설할 목적으로 평양과 의주를 연속적으로 방문하였다. 1893년 봄에 리와 나는 토지를 샀으며, 지금은 여자성경학교로 쓰이고 있다. 이것이 공직자들 사이에 대혼란을 야기했으며 사람들을 충동시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명령을 분명히 내린 것으로 알 수 있다. 수백 명의 군중이 운집하였으며, 한국말로 하자면 “야단났다”... 그날 아침에 우리는 서문통으로 걸어갈 때 경찰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였으며... 그렇지만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경찰 가운데 한 사람은 언급할 가치가 있는데, 그는 이기풍으로서 후일에 한국에서 최초로 목사임직을 받고 또한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 제주도로 갔으며, 그 곳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하였다.

(Samuel A Moffett, 1936)¹¹⁾

위에 글에서 마포삼열 목사가 밝히듯이 이기풍 목사는 1893년 이전, 즉 회심 전의 신분은 아전 혹은 포졸(捕卒, 포도군사)로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팻(마포삼열)선교사는 26세의 나이로 한국에 건너와 45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를 양성한 한국교회의 아버지이다.

마팻 선교사는 1864년 미국 인디애나 주 매디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그는 하노버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평생 자연과학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선교사의 꿈을 안고 다시 매코믹신학교에 진학하여 정식으로 신학을 배웠다. 그는 1889년 4월15일 미국 북장로 선교부로부터 한국

10)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문사, 2008), 14.

11) Samuel Austin Moffett, *Early Days*, 박인찬, “이기풍 선교사의 리더십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2002), 15에서 재인용.

선교사로 임명되고, 1890년 1월 인천 제물포를 거쳐 서울 마포강변에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¹²⁾

마뻬트는 1893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개척 설립했다. 그 해 10월 마뻬트는 평양 서문통 네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 서양 선교사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기풍은 이상한 말로 순진한 한국인들을 꼬여 나라를 삼키려 한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뻬트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턱에 명중시켰고 마뻬트 선교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길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마뻬트는 돌을 던진 청년에게 한 마디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이기풍이 마포삼열 목사를 괴롭혔던 일화 가운데 하나를 길진경은 그의 아버지 「영계 길선주」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기풍이라는 젊은이가 많은 구경꾼들이 둘러서 있는 뒤에서 물에 적시어 눈속에 묻어 얼린 솔방울을 선교사에게 던졌다. 그 솔방울은 선교사의 턱에 맞아 피를 뿜게 했다. 마포삼열은 손수건으로 턱을 감싸 쥐고 군중의 수모와 야유를 받으면서 숙소로 돌아갔다.¹³⁾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은 선교사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이기풍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소란스러워지자 이기풍은 원산으로 피신했다. 이기풍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자신의 한계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로 인해 원산에서도 서양 선교사들을 핍박했지만 스왈른 선교사가 외치는 소리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동안 의기양양 했던 기세가 단숨에 꺾였다. 이기풍은 그 자리에 꿇으며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항복했다.

이기풍은 마뻬트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교회 건축을 방해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곧바로 스왈른 선교사를 찾아가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12) 한경호,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 (서울: 지상사, 2009), 90.

13)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 종로서적, 1980), 48.

구했다. 그리고 1894년 스왈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했다. 그 날 평양의 깡패 두목 이기풍은 죽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자로 다시 태어났다.¹⁴⁾

이사례 권사는 아버지 이기풍 목사가 원산에서 스왈론의 조사로 있으면서 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스왈론은 선복을 환착하고 조사 전군포 이기풍과 협력하여 수륙 각지에 열심히 전도함으로 원산부에 교회가 성립하고 ...¹⁵⁾

회개하고 1896년 초에 스왈론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기풍을 두고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한 바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가 함흥과 북청 등지에서 당한 핍박을 두고는 “주의 사도와 신자를 박해하던 사도바울이 그 어찌 자기가 박해 당할 것을 뜻했겠느냐” 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개종한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을 냈고, 그의 막내 딸 이사례는 예수 믿고 열심으로 전도에 나선 그의 아버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 후로부터 아버지의 생활은 전적으로 달라졌다.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아버지는 완전히 예수에게 미쳐버렸다. 때는 30세의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이었으니 피곤한 줄도 몰랐다. 어떻게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는지 하루는 거처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쫓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이 감격을 무슨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 아버지의 젊은 가슴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¹⁶⁾

하나님을 모를 때 “술에 취해 건들거리며 평양성 거리를 활개 치며 걸어 다니던 박치기의 명수” 이기풍은 이렇게 변했던 것이다. 이런 열심을 보고 마펏 선교사는 이기풍에게 신학을 배우라고 권했다. 장로가 된 이기풍은 1901년 체

14) 한경호,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 (서울: 지상사, 2009), 132.

15)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문사, 2008), 64.

16) 위의 책, 19.

계적인 신학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1903년 길선주, 양백천 등과 함께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한국 최초의 신학생으로 학업에 열중하여 제1회로 졸업하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서경조, 한석진,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송인서 등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다.

3. 김구 선생과의 관계

이기풍 목사가 1899년 황해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김구선생을 도와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사례 권사는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을 했다.

그 후 김구 선생은 천행으로 사형을 면하고 탈옥하여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셨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음으로 양으로 김구 선생을 많이 도우셨다. 그때 아버지는 김구선생과 안창호 선생을 따라 상해로 망명하려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몽금포까지 갔으나 거기서 갑자기 가슴앓이가 일어나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되어 할 수 없이 아버지만 인천으로 되돌아와서 그분들과 떨어지게 되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긴 눈썹이 꼳꼳이 섰었다.¹⁷⁾

그리고 이사례 권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김구 선생의 음성은 젊은 사람 이상으로 찌렁찌렁하였다. 조국을 찾는 기쁨에서 외치는 김구 선생의 강연은 온 군중의 심금을 울렸다. 강연이 끝나자 나지막하게 음성을 낮추더니 청중을 한 번 휘둘러보신 후 “한국에 돌아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전남 광주에 이기풍 동지의 가족들이 살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면 이 단 위로 올라오시오”라고 말씀하셨다...

김구 선생은 “기풍 동지의 막내딸인가?” 하시며 내 등을 툭툭 치시더니 “나도

17) 위의 책, 61.

자식을 다 잃고 아들 하나만 남았소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을 맺지 못한 채 눈물을 글썽거리셨다.¹⁸⁾

이 사례 권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기풍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해외에 망명 중인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당시의 기록들이 다소부족한데 그것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신분을 숨기고 도왔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김구 선생은 일제침략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고,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방 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여 통일 민족국가 건설운동을 전개한 반외세 민족주의자이다. 이기풍은 어릴 때 한학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척사위정 사상과 김구와의 만남을 통해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 후에 신사참배 반대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옥고와 그 부상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기풍은 옥고에서 나온 1942년 6월13일 주일, 양쪽의 부축을 받으면서 우학리 교회에서 마지막 성찬예식을 거행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며,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우학리 뒷산에 있는 신사에 가서 놀지 못하도록 주의시키면서 혹시라도 신사에 가서 절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셨다.¹⁹⁾

18) 위의 책, 62-63.

19) 위의 책, 206.

Ⅲ. 제주선교 준비과정과 그 배경

1.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1907-1912)의 설립배경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의 창립은 같은 해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장로교회사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교회 성장사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이었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리와 교회정치 체제에 있어서 한국의 거의 모든 장로교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1803년에 선교사공의회가 설립되고 그 후 선교사들과 조선인들이 함께하는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 즉 거의 13년(1893-1906)의 준비기간을 통해 드디어 1907년 9월17일 정오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를 설립했다. 선교사공의회에서는 1906년에 1907년 독노회 설립을 앞두고 지금까지 주관하던 사무를 노회로 이속하기 위하여 공의회에 殘務處理規則制定委員을 선택²⁰⁾ 하면서 독노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수행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12년 9월1일에 설립되었는데 갑자기 설립된 것이 아니라 20여 년에 걸친 그 이전의 상회들, 선교사공의회,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그리고 독노회를 계승 발전한 기구이다. 특별히 중요한 기구는 독노회인데, 총회는 독노회(1907년 9월17일부터 1912년 8월 말까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장로교회 정치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1912년 총회의 설립은 1884년 한국에서 서구장로교회의 선교가 시작된 지 28년, 독노회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이루어진 실로 놀라운 성과였다. 미국에서는 미국 동부의 청교도들이 1630년대에 노회를 설립하여 1789년에 총회가 결성되었는데 미국 노회가 총회로 발전함에 있어서는 85년이나 걸렸다.²¹⁾ 여기서도 단면적인 한국인의 진취적인 성향들을 알 수 있다.

독노회는 단순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탄생 뿐 아니라 한국장로교회의

20) 박안련, 『교회사전회집』 (서울: 조선예수교서회, 1918), 45.

21) 황재범 외, 『초기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232.

교리적, 정치적, 교회법적 존재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노회는 한국에서 경쟁적으로 선교해 오던 4개의 서구 장로교회들(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서구로부터 독립하여 설립한 노회로서 '독립(independent) 노회' 를 뜻한다.²²⁾

1907년에 설립된 대한(조선)예수교장로회독노회는 한국에 파송되었던 4개의 장로교 선교사공의회에서 결정함으로 조직되었는데, 당시 참석인원은 선교사 38명과 조선장로 40명으로 전체 78명이었다. 제1회 노회 때부터 한국인 총대들이 다수를 이루었고 이러한 비율은 이 후로 매년 높아갔다. 독노회 조직을 살펴보면 같은 해 공의회 회장인 마포삼열 선교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회계에는 이길함(Graham Lee, 李吉咸) 선교사가 선출되었다. 나머지 부회장과 서기 및 부서기는 한국인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은 독노회의 조직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에 의한 교회를 염두에 둔 선교사들의 배려이다.²³⁾

<표 1> 제1회로부터 제5회까지의 독노회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⁴⁾

년도(회기)	회 장	부회장	서 기	부서기	회 계	부회계
1907(1회)	馬布三悅	裴基昌	韓錫晉	宋麟瑞	李吉咸	
1908(2회)	奇 一	李訥書	韓錫晉	金弼秀	李吉咸	
1909(3회)	元杜尤	李基豊	韓錫晉	金弼秀	李吉咸	金聖鐸
1910(4회)	奇 一	吉善宙	韓錫晉	金弼秀	謝樂秀	金聖鐸
1911(5회)	李訥瑞	梁甸伯	韓錫晉	金弼秀	謝樂秀	金錫昌

위의 조직을 살펴보면 회장과 회계는 외국 선교사들이 맡았지만 그 외의 자리에는 한국교회 현지 목사들이 맡았다. 이와 같은 것은 아직 자립하기에

22) 위의 책, 232.

23) 황재범 외, 『초기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154.

24) 곽안련, 『장로교회사전회집』 (서울: 조선예수교서회, 1918), 51. 황재범 외, 『초기한국장로교회사』, 158에서 재인용.

부족한 한국교회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이후 선교사들이 독노회를 만들기까지 이 땅에 토착교회와 자립적인 총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인들과 한국교회를 배려한 모습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한편 독노회가 한국장로교회로서 참으로 의미 있는 노회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다는 것과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독노회 기간 동안에 노회가 행한 일들 가운데 핵심은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다. 제1회 노회에서 전도국을 설치하고 가장 먼저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했고, 계속해서 제2회 노회에서는 제주도에 여성교인들을 위해 여자 선교사 파송을 의논했고, 이후 1909년 제3회 노회에서 평양성교회 여전도회에서 연보하여 이선광을 제주 여전도인으로 파송하여 5년간 전도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양대중학교 학생들이 연보하여 대학생 김형재를 제주 전도인으로 4개월간 파송했으며,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 50만의 동포들을 위하여 최관홀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동경의 조선 유학생들을 위하여 한석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3개월간 전도하게 하였다. 이후 박영일 장로가 동경에 파송되었으며 1911년에는 박종순 장로를 일본유학생 전도인으로 파송하였다. 이처럼 한국장로교회는 독노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꾸준히 각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기 선교정책이 오늘 한국교회가 선교대국으로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²⁵⁾

당시 선교사들 중 한국인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의 독노회는 자칫 외국인 노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래서 한국인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독노회는 필수적인 것이었다.²⁶⁾ 그래서 1907년에 처음 개최된 독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혹은 ‘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로 불리며 설립이 되었고, 그날 노회에서 한국인 최초의 목사 7명이 안수를 받아 노회원으로서는 선교사들과 함께 노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25) 황재범 외, 『초기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156-157.

26) 이만열, 『한국기독교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360.

1908년 연동교회당에서 열렸던 제2회 독노회에서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중혼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여 첩 있는 사람은 개 교회에 원입을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어린아이를 데릴사위(처가살이 하는 사위)나 민며느리(아이로 미리 시집을 가는 일)로 데리고 있는 교인의 가정도 징계하게 하였다.²⁷⁾

1909년 평양신학교에서 열렸던 제3회 독노회에서는 규칙부가 각 지방 대리회의 보고서 내용을 규정하여 규칙으로 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후에 총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 시행되었다. 그중에는 특히 당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형편과 책벌하는 일을 매회 분명하게 보고하도록 정했다. 이후로 각 지방 대리회는 대리회 산하의 개교회의 권징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하게 되었고, 총회시대가 되어서도 각 노회가 대리회와 같이 권징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게 되었다.²⁸⁾

1910년 평안북도 염수동 예배당에서 열렸던 제4회 독노회에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유칙(조선 예수교 장로회 유칙)을 정하게 된다. 내용 중에 당회의 직무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인을 징계하는 일을 당회의 중요한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노회가 개교회의 권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내용이다. 또한 제4회 독노회는 혼인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혼인은 교인과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²⁹⁾

1911년 대구 남문안 예배당에서 있었던 제5회 독노회에서는 김필수³⁰⁾씨가 질의한 “관직으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에 관한 세례 여부”에 관하여 답을 하고 있다. 독노회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답을 하고 있다.³¹⁾

독노회 시기의 한국장로교회는 구한말의 혼잡한 혼인풍속에 대하여 나름대

27) 황재범 외, 『초기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212.

28) 위의 책, 213.

29) 위의 책, 213.

30) 김필수 목사는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서 이눌서(W. D. Reynolds) 선교사의 조사로 전주 서문교회에서 장로로 장립 받고 평양신학교에 진학하여 1909년 목사 안수를 받고 전라노회에서 전북 동북부지방 전도목사로 사역을 하였다. 제1회 총회에서 일본교회 장로의 문안인사 때에 통역을 하기로 한 그는 한국인 최초로 제4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된다.

31) 위의 책, 214.

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회에서는 술이나 담배에 대한 치리를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중직자들 외에는 금하는 의결을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 언론매체와 개교회 당회는 계몽과 치리를 잘 시행하고 있었다.³²⁾

1907년에 창립한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는 영어로는 ‘The Independent Korean Presbyterian Church’ 또는 ‘조선자유예수교장로회’라고 불린 것 같이 서양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장로교회를 의미했다. 여기서 독노회(獨老會)라는 표현은 항간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유일한 노회’라기 보다는 서구 장로교회로부터 ‘독립한 교회(노회)’를 의미했던 것이다.³³⁾ 당시 한국에서는 서구장로교회의 영향으로 4분되어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으로 분단될 위험도 있었지만 서로 연합하여 서구의 모교회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노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후에 총회가 설립되고 한국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 된 것이다.

당시 서구의 각 선교부는 한국교회가 서구교회로부터 독립하여 한국장로교 지도자 중심의 정치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자전, 자치, 자립’의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하여튼 이는 서구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이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독립·성장은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나라가 와해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는 실로 한국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연합으로써 ‘성도의 하나 됨’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정치(치리)기구로서의 독노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훈련이요, 모범이었다. 그 당시 어떤 단체도 장로교회만큼 광범위한 개교회 조직(당회)과 더불어 지역의 노회들과 전국적 총회라는 대의적 민주주의 정치 매커니즘을 가진 단체는 없었다. 이것은 혈연, 지연, 학연 등에 따라 분파와 분열을 일삼아 온 한국인들에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러므로 한국장로교회는 독노회와 총회의 구성으로 연합하고, 그 바탕에

32)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63.

33) 황재범 외, 『초기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257.

서 한국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양대부흥운동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⁴⁾ 이기풍 목사만 해도 그는 장로교 선교사들의 연합정신에 의해 세워진 평양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들의 연합정신에 의해 설립된 독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에 선교사로 세움 받을 수가 있었다. 만약 독노회의 설립이 없었다면 평양대부흥운동과 제주선교는 많은 부분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907년 독노회 및 1912년 총회 설립은 세계교회사 및 문명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기원된 교회가 1900년간 로마제국을 통하여 서구에 뿌리를 내렸다가 이제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을 보여 준 대표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기독교 전체적으로는 예수그리스도가 단순히 인류의 한 부분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주가 될 수 있음을 정치·사회적으로 증명해 보인 사건이었다.³⁵⁾

2. 제주선교 결정과 선교사로서 이기풍 목사의 임명

1901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의 장로가 된 이기풍은 1903년에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1907년 9월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설립되면서 최초 한국인 7명의 장로교 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았다. 다음 날 오전에 노회가 속개되면서 마포 삼열 선교사의 요청으로 이기풍 목사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풍 목사의 기도에 은혜를 받았고, 예전의 험상궂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 모두 놀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는데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선교사로 지원하였다. 당시 독노회 전도회 위원 길선주 목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一.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일

34) 위의 책, 259.

35) 위의 책, 260.

- 二. 선교스의 월은과 전도 용비는 각 교회의게 감사헌 마음으로 연보하게
부탁할 일
- 三. 연보할 때는 각 교회에서 연보할 편지 보는 주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연보할 일
- 四. 제주선교스는 리기풍씨로 전도인 혼두 사름과 동반하야 파송할 일……
- 七. 제주선교스와 전도인 월급 바때 ㄹ1왕비와 가사비와 전도회 인허
특별비를 본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³⁶⁾

회장이 위 사항에 대해 일일이 회원들에게 찬반을 물었고 회중은 이에 동의하여 바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신속히 추진되었다. 이기풍의 친구이자 평양 신학교 졸업 동기생인 전도국 위원 양전백이 각 교회에 제주선교를 위해 연보를 부탁할 편지를 보고하였고, 한위렴이 이 편지를 츠용하야 서기로 속히³⁷⁾ 전국 교회에 발송하기로 동의하여 결의했다.

1) 제주 선교사로 지원한 동기

이기풍 목사의 목회관의 첫출발은 그의 삶의 여정에서 볼 수 있듯 집안의 무인기질을 발휘하여 진취적이며 도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기생 목회자들은 출신지역 혹은 연고가 있는 지역의 담임목사 혹은 전도목사로 파송 받았는데 이기풍 목사는 출신지역과는 전혀 다른 무연고 지역으로, 그것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황무지로 떠났다. 그것도 자신을 후원하는 단체나 연고가 전혀 없는 미국 남장로교회와 전라대리회 소속 교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결단과 결행은 7명의 동기 목회자 가운데 사명에 대한 빛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⁸⁾ 그는 쉽고 편한 길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원하는 희생자였다.

이기풍 목사의 목회는 항상 진리에 바르게 서려는 마음, 하나님께 충실하려는 마음이었다. 이기풍 목사의 올곧음은 가족력에 이미 있었으며(할아버지의

36)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록』 (1907), 16-17.

37) 위의 책, 17.

38) 김수진 외, 『장로교회초목사 7인 리더십』 (서울: 쿰란출판사, 2010), 112.

홍경례의 난 가담), 그가 이러한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울곧음은 제주도 선교사를 지원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으며, 제주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어 내는 인내력에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기풍 목사의 불의를 못 참는 강직한 정신은 개종 전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표출되었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마포삼열에게 돌을 던졌지만 개종 후 그 강직한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강직한 정신은 제주선교 초기 박해를 이겨내는데 힘이 되었다.

2) 제주도 선교사 파송의 배경과 숨은 조력자

한국장로교회가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힘의 원천이 있었는데 하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제주선교에 대한 동력을 제공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조력자인 이기풍 목사의 아내 윤함애 사모의 내조였다.

독노회 창립과 함께 한국교회가 단독으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었다. 1903년 겨울부터 원산을 기점으로 평양, 서울, 목포, 송도 등지에서 일어나던 부흥이 1907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된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사경회 기간에 촉발되었고 특히 1월 14, 15일의 마지막 이틀 동안 평양의 4개 교회 연합특별저녁집회 중에 부흥운동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 전체를 휩쓸던 1907년, 한국교회는 한편으로는 교회조직을 통해 외형적인 틀을 다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고백의 채택과 신학교육을 통해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틀을 다지면서 해외선교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한국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에 파송한 데 이어 일본,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을 가슴에 품었다, 부흥운동과 더불어 재도적인 틀을 다진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하여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틀을 다졌던 것이다.³⁹⁾

39)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출판사, 2007), 205-240.

평양 대부흥운동이 제주선교의 동력을 제공했다면 독노회 설립은 제주선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

또 이기풍 목사의 사모 윤함애 여사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 이기풍 목사의 막내 딸 이사례 권사는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았다. 7명의 목사가 탄생한 가운데 독노회에서 제주도에 파송할 선교사의 인물을 놓고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는데 7명의 목사 가운데 선풍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날 아버지가 귀가했을 때 어머니가 매우 궁금해 하며 물었다. “제주도 선교사가 선정되었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구려”, “그럼 우리가 가서 선교합시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불쌍한 영혼을 어찌하려고요” 아버지는 강력히 조언하는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 들었다.⁴⁰⁾

이기풍 목사의 선교사역 뒤에는 빛도 없이 숨어 내조하는 윤함애 사모가 있었다. 윤 사모는 황해도 안악에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모진 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인 그녀의 나이 18세 때 전도를 받고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그리고 모진 병을 믿음으로 고침 받았다. 그녀는 부모의 핍박으로 집을 나와 평양의 마펏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리 선교사(Graham Lee, 이길함) 선교사의 양녀로 보내었다.

윤함애는 5년 동안 게일 선교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평양 숭의여학교를 졸업하고 이길함 선교사의 집에서 지내면서 믿음의 여장부가 되었는데 25세 되던 때 마포삼열 선교사를 통해 중매가 들어왔는데 윤함애는 “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사양했다. 마포삼열 선교사도 더 이상 권유하지 않고 돌아갔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일주일 만에 급하게 윤함애에게 와서 “윤함애 씨 매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이기풍씨 부인이 얘기를 낳고 죽었습니다. 얘기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기풍씨

40) 정석기, 『위대한 선교사 열정』 (서울: 쿰란출판사, 2002), 36.

를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자 윤함애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놓고 금식기도 하다 결심하고 이 뜻을 이길함 선교사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1903년 마펏 선교사의 주례로 급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⁴¹⁾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하던 그날 밤 그는 윤함애 사모와 같이 철야기도로 밤을 세웠다. 그리고 제주도 선교지로 가기 위해 사모는 등에 어린 아이를 업고, 피나리봇짐을 머리에 이고 남편을 따라 나섰다, 세 식구는 인천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을 보고 평양성의 부인조직회 회원들 중에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⁴²⁾

이같이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사 파송은 평양대부흥운동이 보이는 영향력이었다면 윤함애 사모는 보이지 않는 숨은 조력자라 할 수 있다.

3) 제주도 선교사 파송의 의미

첫째. 제주선교는 한국교회의 홀로서기를 의미한다. 초기 한국교회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던 클라크(곽안련, Charles Allen Clark)선교사는 한국교회의 제주도 선교사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 조선 장로교회는 설립 당초부터 전도인과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다. 우리 교회가 1907년에 타국교회의 관리를 떠나 자치(自治)교회가 된 것은 자타가 공축(共祝)할 특기의 사실이다. 전국교회는 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전력을 기울여 큰 연보를 하여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작정하고 7인밖에 없는 목사중에서 이기풍 목사를 외지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 놓았다.⁴³⁾

곽안련 선교사가 초기부터 자급(自給)·자전(自傳)하는 교회로 성장해 온 한국교회가 1907년 독노회 출범과 제주도 선교를 기점으로 하여 자치(自治)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밝힌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⁴⁴⁾

41) 위의 책, 36.

42) 위의 책, 37.

43) 곽안련, 『장로교회사 전회집』, 101. 변창욱, “한국장로교회 선교사 파송100년”, 『선교와 신학』 제19집 (2007년 봄), 19.

이에 19세기 중반 영국교회 선교회 총무 헨리 벤(Henry Venn)과 미국회중교회 선교부 총무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이 선교의 궁극적 목표가 삼자원칙에 근거한 현지 교회 설립이라고 주창한 이후 세계 선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교회론에 의하면 이제 한국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이다.⁴⁵⁾

둘째. 제주선교는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했음을 의미한다. 한국기독교는 불과 2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독노회를 조직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각성을 통해 성령의 기름부음을 경험했고, 새로 조직된 교회가 복음의 빛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를 결정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하나 되어 어우러진 결정이었다. 그리고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온 기도의 제목이었다.⁴⁶⁾

평양대부흥운동이 자연스럽게 해외선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먼저 교회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한 교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선교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주선교 100년은 곧 한국선교의 시작을 의미한다. 제주선교는 한국교회 선교의 시작으로 한국교회의 역사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미국을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 선교사가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기독교의 시작인 예루살렘에도 선교사가 나가 있다.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놀라운

44)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노회장; 마펫)가 창립되고 1912년 9월 총회(총회장: 언더우드)가 창립됨으로써 한국 장로교회는 조직교단으로서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총회장과 회계 등 대부분의 총회 주요 임직을 서양 선교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선교사의 영향력이 어찌 했는가와 완전한 자치로의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45) 변창욱, “한국장로교회 선교사 파송100년”, 『선교와 신학』 제19집 (2007년 봄), 19.

46)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5.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다. 그런 면에서 한국선교와 경제발전은 모종의 함수관계
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교하
는 교회와 민족을 축복해 오셨다.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한 한국교회는
오늘날 선교강국,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⁷⁾

47) 위의 책, 16.

IV.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

1908년 1월11일 청중들이 떼운 가운데 길선주 목사가 시무하는 장대현교회에서 이기풍 목사 파송예배가 드려졌다. 파송예배를 마치고 1908년 1월17일 조사 한 명과 아내와 함께 평양역을 출발한 이기풍 목사는 같은 날 서울 남대문에 도착해 승동교회에서 7일간 체류한 후 1월24일 목포항 기차에 올랐다. 목포에 도착한 그는 프레스턴(John F. Preston)과 포사이드(W. H. Forsythe)를 비롯한 그 곳 선교사들과 교우들의 환영을 받으며 얼마를 더 체류한 뒤 자신의 선교지 제주도로 향했다. 광주와 목포에서 집회를 인도한 이기풍은 2월20일 목포를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했는데 풍랑으로 추자도에 잠시 체류하는 바람에 44일 만인 4월 초순에야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⁴⁸⁾

1. 이기풍 목사의 제1차 제주선교(1908-1915)

1) 제주선교의 첫 사역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와 이재수의 난으로 ‘예수’는 제주도에서 금기가 되었다. 그런 여파가 있는 상황에서 이기풍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 리가 없었다. 길선주의 예견대로 오랫동안 우상과 미신의 굴레에 매여 있던 제주도 원주민들은 한국의 첫 선교사 이기풍을 처음부터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제주성 안에 방까지 붙여가며 이기풍을 박해했다.⁴⁹⁾ 하지만 혹독한 박해와 핍박도 동족 복음화에 불타는 이기풍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박영효 대감은 초기 이기풍의 제주선교에 큰 힘이 되었다. 박영효는 오끼자끼 위술 사령관이 치안에 방해를 준다고 내무대신에게 통고함으로 제주유배 유형 1년에 처해서 1907년 8월29일 제주 유배지로 향했다.

제주에 도착한 박영효는 ‘제주도민의 자제들을 모아 일어와 조선어를 가르쳐 주며 딸(묘옥)은 일본에서 배운 재봉을 전습하여 주었다’ 1907년 말 대대적

48) 박용규, “초기 한국장로교 해외선교” 『신학지남』 제71권1집 통권 제278호 (2004 봄), 89.

49) 차종순, 『제주성안교회 90년사』, (제주: 제주성안90년사 편찬위원회, 1999), 123.

인 특사령이 내려 각지에 유배당한 이들이 석방되었지만 박영효는 ‘형사상의 범죄가 아니며 보안법의 행정처분을 받아 유죄된 것이기에 특사의 은전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형기만료 석방 후에도 제주도에 머물면서 딸과 같이 제주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박영효는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에 큰 힘이 되었다.⁵⁰⁾

얼마되지 않아서 이기풍 목사를 박해하던 박해자 중 10명이 믿기 시작했고 곧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처음 제주에 갔을 때 ‘돌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으나 조랑말을 타고 제주 전역을 순방하며 일손을 도우며 헌신과 사랑으로 전도한 결과 불과 3년 만에 이기풍은 ‘그 곳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⁵¹⁾

제주에서의 첫 사역 6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결실이 있었는지 『제2회 독노회록』이 증언하고 있다. 1908년 9월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2회 독노회 때 전도국 위원 김찬성은 이기풍의 제주선교와 관련하여 이렇게 보고했다.

제주 전도하는 일은 잘 되옵는듯 원입인 아홉 스릅이오며 21 주일 모히는 사릅은 이십여 명이오며⁵²⁾

제주에 파송 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1908년 독노회 앞에 원입인 9명, 주일 출석 20명이라는 선교 결과가 보도되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실이 가능했던 것은 한편으로 성령께서 우상으로 물든 제주도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 박영효 대감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예수를 영접한 김재원과 젊은 구도자 김행권, 홍순홍의 협력이 이기풍 제주선교에 중요한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재원과 홍순홍의 1917년 4월1일 장로장립을 받았다.⁵³⁾ 이기풍의 파송으로

50)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46.

51) 위의 책, 147.

52)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록』 (1908), 7.

53)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48.

촉발된 선교정신은 전국교회에 적지 않는 도전을 주었다. 전도인을 파송시킨다는 독노회의 결정에 따라 독노회와 한국교회는 이기풍 목사 외에도 다른 사역자들을 정기적으로 제주선교에 동역하도록 파송했다.

그 외에도 평양여선교회에서 파송한 이선광 전도사가 제주선교에 합류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가 밝힌 대로 이미 1908년에 이기풍의 제주선교로 금성리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그 현장에는 훗날 제주 출신 1호 목사가 된 이도종(李道宗)이 있었다. 1908년 이기풍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김재원의 지원을 받으며 금성리 교회를 설립했는데, 바로 그 현장에 훗날 제주선교의 산증인이자 목격자이며 또한 제주에서 처음 순교한 제주 출신의 목사 이도종이 참석하여 장차 제주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⁵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도 놀랍다.

이기풍 목사에 대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지원은 꾸준하고 일관되었다. 목포부흥운동의 주역 남 장로교 선교사 프레스톤(John Fairman Preston, 1875-1975)은 제주도 방문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다 동료 배유지(Eugene Bell 1868-1925) 선교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 선교사업이 고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하튼 선교사들이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선교를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기풍과 동료들의 헌신 그리고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 짧은 동안 제주에 4개의 신앙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었다. 프레스톤은 1주간 포사이더(Wiley H. Forsythe, 1873-1918) 의료선교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다.⁵⁵⁾ 이들의 지원을 받은 이기풍 목사는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에 여러 차례 전도 집회를 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알 수 있다.

2) 제주선교의 초기 결실들

여러 차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 제주도로 파송

54) 이도종 목사기념사업회, 「제주 제1호 목사, 이도종의 생애와 순교」(제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2001), 86.

55)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49-151.

받은 지 불과 3년 만인 1011년 9월 제 5회 독노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에 1908년 금성교회, 1909년 조천교회 그리고 1910년에 성내교회를 설립했으며 그리고 예배 처소 두 곳과 160명의 교우, 또한 1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하나를 설립했다.⁵⁶⁾ 복음전도 외에 선교 초에 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은 놀랍다. 기독교 복음의 대 사회적 책임의식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다. 원주민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 시작한 제주선교가 불과 3년 만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다. 후에 독노회 전도국이 ‘리기풍 목사를 다시 제주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청원’⁵⁷⁾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선교 보고 가운데 특별히 “얕심기로 이적을 만다”는 사실은 제주선교가 외형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성장 역시 상당했음을 말해준다. 놀라운 치유의 기록은 다른 보고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제주선교에 놀라운 복음전도를 촉발시킨 사건은 이기풍 목사를 통해 난치병이 고침 받고, 귀신이 나가고, 정신 이상자들이 고침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로스(A. R. Ross)는 1911년 11월 「코리아 미션 필드」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했다: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목사는 한 의료선교사가 치료를 위해 목포로 데려온 11살 먹은 한 절름발이 소년에 대해 말했다. 약 3개월 동안 그 소년을 치료하려고 노력한 후 의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제주도로 돌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주었다. 소년은 제주 집으로 돌아가 7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가 힘을 얻어 일어나 걸었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교회는 병원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기풍)목사는 학교 운영이 어려웠을 때 타 지역의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보내 준 것과 선천의 한 여인이 재정이 어려울 때 그녀의 반지를 현금, 특별히 가치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말해 주었다. 그 (이기풍 선교사)는 또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집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심한 매를 맞으며 핍박을 당한 두 명의 여인들의 박해가 없었다면 제주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그는 지금은 제주도에 다섯 곳 예배처에서 16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학교에는

56)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록」(1911), 10.

57) 위의 책, 27.

1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⁵⁸⁾

로스가 보고한 것처럼 제주선교가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기까지는 성령으로 인한 신유의 역사와 자신들의 집을 예배처서로 내놓은 두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들이 복음에 대해 배타적인 그 곳을 변화시키는 마중물들이 되었다.

1912년에 이르러 제주선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1912년 장로교회 창립총회 때 총회 전도국 위원회가 “제주교회” 이름으로 보고한 제주선교 현황은 매우 구체적이다.⁵⁹⁾

<표 2> 1912년 제주선교 현황보고

구분	상세내역	인원	구분	상세내역	인원
교인수 敎人	금년세례인	十七인	성경 공부 聖經 工夫	사경회 一츠	八十人公부
	세례인도합	五十인		모일 스스로이성 경보논이	二十인가령
	금년 〰 회세례	二人		주일아침성경공부 흔논이	一百二十인
	〰 회세례도합	五人	기도 형편 祈禱 形便	사기도흔논집	八
	금년학습인	二十五인		부흥회기도	一츠
	학습도합	五十七인		특별회집기도	二츠
	금년 새로 단 는 사람	二百여인	특별 스건 特別 事件	교인중에 권능을 밧아 병곳치는자만코 전도인이 전도함에 문이 크게 열렸스오며	
	교인도합	四百十인			
직분 職分	조스	一人	회집 형편 會集 形便	매주일모히논남인	一百여인
	령수	一人		매주일모히논여인	二百여인
	집스	二人		모일 삼일레브 에 모히논이	一百五十 여인

58) “Brief Notes on the Meeting of Presbytery,” *KMF* VII (Nov, 1911), 312,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61에서 재인용.

59) 「제1회총회록」 (1912), 14-18.

레브 처 소 禮拜堂	레브1당	三		교회 형편 教會 形便	직분들 회합함	
	기도회 처소	五			교인들 신령하고 열심잇슴	
학교 學校 1개	남학도	八				
	녀학도	四				
	교스	一				
연보 捐補	조스연보	一百二十 원				
	주일연보	四十五원 九十四원				
	학교연보	五十九원 三十七元 七리				
	연보연보	二百二十 五元三十 一元七리				

이기풍 목사가 1912년 총회에 보고한 제주선교 현황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우리는 1912년 보고를 통해 제주선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형적인 성장이다. 1년 동안 세례 받은 사람이 17명, 전체 세례교인 58명, 당해 유아세례 2명, 당해 학습교인 35명, 전체 학습교인 57명, 당해 새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200여 명, 교인 도합 400이었다. 조사 1명, 영수 1명, 집사 2명, 예배당 3곳, 기도처 5곳, 그리고 학교가 1개였다. 매주 남자 100명, 여자 20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예배에 150명이 모일 정도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했다.⁶⁰⁾ 외형적으로 엄청난 발전이었다. 이러한 발전은 이기풍 목사의 사역을 인정하는 협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이기풍 목사의 노력은 1930년 제주노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⁶¹⁾

둘째, 성실한 성경 공부이다. 전 제주교인들을 대상으로 1차 사경회를 실시

60)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63.

61) 이기풍은 1927년 다시 제주도 성내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30년 사임하기까지 노력하였으며 그의 노력의 결과 1930년대 제주노회가 탄생한 것이다.

해 80명이 참석했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20여명, 그리고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120명이다. 당시 제주 상황에서 볼 때 이 정도로 교인들이 성경공부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제주선교는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장래가 밝다는 사실을 보여준 증거이다.

셋째, 성령의 권능이 제주선교에 나타나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다. “교인 중에 권능을 받아 병 곳치는 자 만코 전도인이 전도 함에 문이 크게 열 녀스오며”⁶²⁾ 라고 보고한 것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 권능은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은 사도행전이 보여주듯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주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권능은 사역자들만 아니라 ‘교인중’ 이라고 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교회 가운데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수한 고난을 이겨낸 이기풍 목사의 신앙의 연륜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윤함애 사모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기풍 목사가 이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긴 윤함애 사모의 정성어린 간호가 시작되었다. 윤 사모는 간호 뿐 아니라 당시 신식여학교 출신으로 의학 지식을 배웠을 뿐 아니라 선교사들로부터 각종 처치 방법들을 두루 배웠다. 이렇게 배운 실력으로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이런 소문은 빠른 시간에 제주도 관내로 퍼져 나갔다. 기풍의 집에 환자들이 몰려온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누구나 산기가 있거나 아프면 무조건 윤함애 사모를 찾을 정도가 되었다.⁶³⁾

교회의 부흥은 어느 하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 아래 사역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교인들의 사모하는 열정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개인의 신앙성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물이 교회부흥이다.

넷째, 교회가 화합과 일치에 힘쓰며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탔다는 사실이다.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만 직분자들이 화합하고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하는 열심은 건강한 교회성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다. 제주의 경우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때 나

62) 「제1회총회록」(1912), 17,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64에서 재인용.

63) 이경윤, 『백인 백번의 인내』(서울: 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11), 98.

타났던 현상들이 상당히 공유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인들이 현금 내역 중에 조사연보를 위한 현금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볼 때 제주교회가 자립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양교회의 제주선교 지원도 헌신적이었는데 제주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제주선교를 추진했다.⁶⁴⁾ 이처럼 제주선교는 특별히 한 사람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 동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진 합작품이었지만 그 첫 단추를 끼운 이기풍 목사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평양녀전도(平壤女專道)국에서 평양 리시선광(善光) 일년동안 제주(濟州)전도인으로 보내어 모든 부비를 다 담당하야 전도하옵고 전도국에서 六十원을 보조(補助)하교 제주성(濟州城)교회 형제자매(兄弟姊妹)들이 六十원을 담당(擔當)하야 합一百二十원으로 제주형제중에 혼사름을 택하야 제주성교회와 각교회에 조스(助事)로 세웠스오며⁶⁵⁾

제주선교는 총회적인 차원에서, 평양교회의 차원에서, 전국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제주교회 자체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 제주선교는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 잡게 만든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가속화 되면서 일제의 수탈과 착취는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리기풍에 대한 대우는 총회전도국 차원에서 신경을 썼다.⁶⁶⁾ 1911년 전도국 회계결산보고에 의하면 수입 1천사백원사십오전오리였고 지출은 1천삼백이십구원팔리를 지출했다. 그중에서 “리기풍시월급”으로 년 이백칠십원이 지출되었다. 전체 지출의 약 25%를 목사의 사례비로 지불한 것이다. 이 같은 금액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는 당시 제주선교의 열약한 환경을 반영한다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64)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64.

65) 「제1회총회록」(1912), 18,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60에서 재인용.

66)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66.

또 제주선교를 위해 이기풍, 강병담, 이재순, 이선광이 파송되고 총회, 노회, 성서공회, 지역교회, 남녀학교, 그리고 고라복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평양여전도회에서 이선광 여선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성서공회는 매서인의 월급을 지원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관에서 제주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⁶⁷⁾

1913년 총회전도국 보고서가 보여주듯 제주선교의 형편은 매우 희망적이다.

전도구역교회형편

1. 제주교회 형편은 가속기도와 특별기도 중에 신령하오며
2. 성경공부는 ㄹ1 주일 오전에 월보공부로 회당마다 사경도 하고 삼읍 도사경도 하였습는데 1 一百十여명이 회집하였소오며
3. 전도는 ㄹ1인전도와 ㄹ1주일 오후에 二인씩 짝지어 전도하오며 남녀학도는 아동의게 전도하야 주일학교가 왕성하오며
4. 레브1당은 四년간 징축하였소오며
5. 학교형편은 남학도 팔이이오 녀학도 사인인드1 ㄹ1 정군종훈 중 근근유지하오며
6. 리기풍목스는 신학교 ㄹ1 학할 때부터 총회때까지 쉬게 하였소오며
7. 리기풍씨는 쉬일 때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중에 황주읍교회에서 五十원과 중화읍교회에서 二十여원과 평양도 제직사경시에 四十六원 八十九전오리 연보가 되었는니다.
8. 장르1사건은 신학도를 ㄹ1양할 것과 죠스월급을 전담할알과 레브1당이 협착하야 금년 ㄹ1로 건축할일⁶⁸⁾

1913년 제주선교에 대한 전도국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제주교회들은 기도하고, 성경공부하며, 정기적으로 사경회를 열고, 전도에 열심을 내며, 교인의 증가에 따라 교회를 증축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한국교회가 선교사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유산이 제주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제주선교가 얼마나 알차게 진행발전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정기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도 상당히

67) 위의 책, 170.

68) 「제2회 총회록」(1913), 59-60,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71에서 재인용.

증가했음도 알 수 있다.

<표 3> 1913년 제주선교 현황⁶⁹⁾

	구분	인원		구분	인원
1	금년세례인	二十一	8	영수	三
2	세례인도합	八十二	9	집사	二
3	아흐 세례	五	10	레배당 삼처	제주성안 대정읍 조천관
4	금년학습	二十三	11	기도회처소	六
5	학습도합	八十四	12	매 주 일 출석 수 는 도 합	四百여명
6	피택장로	一	13	학교비용	四十二원 五十전
7	조스	一	14	레배당잡비와 징축비	五百七十원 九十五전

1913년 총회보고를 통해 제주선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요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 세 개의 예배당이 어느 곳인지 밝히고 있다. 제주성안교회, 대정읍 모슬포교회, 정의지방 조천교회 이 세 교회가 1913년 9월 총회 현재 예배당을 갖고 있는 제주의 세 개 교회였다. 이들 세 개 교회 외에도 다섯 개의 기도처소가 있었다. 결국 1908년 제주선교가 시작된 이래 1913년까지 5년 동안 세 개의 교회와 다섯 개의 기도처 총 8개의 신앙공동체가 제주에 생겨났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실을 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12년 한 해 동안 세례를 받은 사람은 21명이고 학습을 받은 사람은 23명이었으며, 전체 세례인과 학습인은 세례인 82명, 학습교인 84명, 도합 166명이었다. 제주에는 신앙의 결실들이 하나 둘씩 맺히기 시작했다.

둘째, 피택장로가 1명이고 영수가 3명 그리고 집사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이다. 복음전파 5년 만에 장로가 피택 되었다는 사실은 제주선교의 진보가 늦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김재원 장로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 그는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도착하기 전 세례를 받은 인물이었다.

셋째, 출석교인이 매 주일 4백 명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1912년 총회 보고

69) 위의 책, 172에서 재인용.

에는 교인이 4백 명이었는데 1913년 총회보고에는 주일 출석교인이 4백 명이 었다. 1913년 보고 때 전체교인의 수가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있지는 않지만 출석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전에 비해 출석교인이 증가했음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⁷⁰⁾ 이러한 성과는 총회 선교부 정책인 네비우스(Nevius)선교정책⁷¹⁾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1913년 총회 전도국의 지출보고에 의하면 지출액은 926원인데 이는 1,329원을 지출한 1912년과는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이를 내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1913년 총회 전도국 제주선교 지출보고 내역⁷²⁾

지출내역	지출액	지출내역	지출액
리기풍목스월급	二百七十원	강병담월급	一百八十원
동전도비	二十원	동전도비	七十五원七十六전
동가샤슈리비	十五원三十二전八리	동로비	十七원五十一전
동샤랑비	十四원八十八전八리	쵸스월급	六十원
리재순월급	一百八十원	전도국용비	三十二원七十八전
동전도비	五十九원八十七전	총지출액	九百二十六원十三전四리

전체 선교비의 지출 내역을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이기풍 목사, 이재순과 강병담 전도인의 사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기풍 목사와 다른 전도인과의 월급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이기풍에게는 년 270원을 지불하고 전도인들에게는 180원 씩 균등하게 지불했다. 당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보고서에 읽혀진다. 다만 전체 선교비 액수에서 세 사람에게 지불된 선교사 인건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제주선교가 해외 선교지로서 갖추어야 할 학교운영, 문서선교, 병원운영 등과 같은 선교사 사례 외에 필요한 선교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감당

70)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74.

71)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자력전도(Self-Propagation), 자치제도(Self-Government), 자급운영(Self-Support)으로 요약할 수 있다.

72) 「제2회총회록」 (1913), 21-22,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75에서 재인용.

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기독교학교운동에 대한 기록이다. 직접적인 대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책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제주에 설립된 학교들이다. 비록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제주의 대 사회, 대 문화, 대 민족적 책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1908년 이기풍 목사의 부인 윤여사는 34명을 사택에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다. 1910년에는 삼도리 예배당에서 6년제 영흥(永興)학교가 설립되어 남녀학생 수십 명이 교육을 받았다.

영흥학교 설립초기부터 활동하였던 교사는 조봉호(趙鳳鎬), 좌징수(左澄洙), 김동선(金東善), 김세라(金世羅), 강규언(姜圭彦), 김봉주(金鳳周), 홍마래(洪瑪大), 홍마리아(洪瑪利亞) 등이었다.⁷³⁾

전라노회가 파송한 윤식명 목사 역시 1920년 가을 모슬포교회에서 광선의숙(光鮮義塾)을 설립하였고, 1923년 봄부터는 보습과를 부설하여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⁷⁴⁾ 처음 중문리에 영명(永明)학교를 설립했으나 아동 수가 많지 않아 모슬포에 “개량서당” 형식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⁷⁵⁾ “학교분위기는 항일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하여 광선(光鮮)이라는 의숙 이름도 조선(朝鮮)을 광복(光復)한다는 뜻으로 지었다.”⁷⁶⁾고 알려진다. 당시 최정숙(崔正淑)이 숙장을 맡았고 교사는 강규언(姜圭彦), 이기언(李寄彦), 정동규(鄭桐圭), 조창일(趙昌日)등 이었다.⁷⁷⁾

원용혁 조사 역시 협재(挾才)에서 영재야학부(英才夜學部)를 설립하여 협재리와 그 인근 마을의 청소년들을 모아 교육에 힘썼다.⁷⁸⁾ 서양 선교사들의 손이 닿기 힘든 제주에 근대교육의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1924년 4월에는 제주 성내교회의 관인 중앙유치원을 개원했는데 이는 제주 최초의 유치원이다.⁷⁹⁾ 그러나 기독교학교(중,고,대 학교)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 사뭇 아쉬운 모습이다.

73) 姜文昊, 文泰善, 『濟州宣敎 70年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8), 46.

74) 위의 책, 46.

75) 김태혁, 『濟州敎育史』 (제주: 제주도교육청, 1999), 351.

76) 위의 책.

77) 김태혁은 원용혁이 숙장을 맡았다고 말한다. 김태혁, 『濟州敎育史』, 351. 원용혁 역시 광선의숙 학교 운영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78) 姜文昊, 文泰善, 『濟州宣敎 70年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8), 47.

79) 「기독신문」(1924년 10월 22일),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76에서 재인용.

제주 사람들이 개화파의 거두 박영효와 남강 이승훈을 만난 것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사건이었다. 박영효는 이기풍 목사의 초기 제주선교에 직, 간접으로 지원하였고 남강 이승훈의 경우에는 1911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남만주무관학교사건(일명 안명근 사건)의 연루자로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포구에서 유배생활을 한 일이 있었다. 그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주의 교회와 학교 그리고 민족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도에 내려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였다. 그가 제주도 유배의 판결을 들으면서부터 제주도에 있는 동안 교회에 나가 고단한 영혼을 쉬고 새로운 향도(嚮導)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제주교회 김장로의 알선으로 교회당 옆에 있는 조그만 숙사에 유숙하면서 낮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도 도왔고 밤에는 등장 아래서 성경공부와 기도로 날을 보냈다. ...제주도에 있는 동안 남강의 생각은 역시 민족운동과 개화주의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곧 교회와 학교로부터 강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용동 동네 사람들에게 하던 것 마냥 민족주의의 고취와 민족성 개조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⁸⁰⁾

교회사적으로 만남의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 제주 기독교와 이승훈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제주기독교 역사에서 이승훈과의 만남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영흥학교에 재학하던 이의종(李義宗)이 16세 때 남강 이승훈이 재직하던 평북 정주 오산학교에 유학하여 졸업한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남강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흥학교 교사이자 금성리교회 설립자 중 한명인 조봉호가 주도한 “군자금 모금사건”도 기독교와 제주민족운동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이다.⁸¹⁾ 제주선교는 그 사회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순히 복음의 확산 뿐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했고, 이를 통해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눈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80) 김기석, 『남강 이승훈』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170-171.

81) 이도종목사기념사업회 편, 『제1호목사(이도종의생애와순교)』 (제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2001), 46-50.

3) 제주선교 전라노회로 이전

해외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제주선교는 전라노회가 맡았다. 제주에 대한 선교적 관심은 총회적 차원만 아니라 제주도가 속한 전라노회의 초미의 관심이었다. 전라노회는 노회에서 제주선교를 전담하기로 결정하고 총회에 현의하여 허락을 받아냈다. 1913년 제2회 총회가 경성 승동교회에서 회집할 때 “본 지방 전도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각 노회, 구역 내 미전도 지방에 전도하는 사업은 각 노회 전도회에 위임”⁸²⁾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제주전도 사업은 전라노회에 위임하였다.”⁸³⁾ 이를 통해 제주선교는 해외선교의 차원이 아닌 국내전도로 바뀌게 되었다.

1915년 이기풍 목사는 7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제주를 떠났다.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제주에 부임하여 7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한 이기풍은 건강문제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08년부터 1915년까지의 7년간을 선교사로 섬기는 동안 이기풍은⁸⁴⁾ 너무도 많은 결실을 이루었다. 모슬포, 법안, 중문, 용수, 한림, 금성, 조천, 삼양, 새화, 성읍교회는 이기풍 목사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⁸⁵⁾ 이들 교회들은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뿌려 놓은 대표적인 선교 결실들이다. 1908년부터 1915년 사이에 제주도 설립된 교회와 설립일자는 다음과 같다.

<표 5> 초기 제주에 설립된 교회들⁸⁶⁾

	교회 이름	위 치	교회창립
1	서문통(성내)교회	제주읍 삼도리	1908
2	성읍교회	제주도 표선면 성읍리	1908

8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15.

83) 위의 책.

84) 1915년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친 이기풍은 1916년 전라남도 광주 북문안 교회 초대목사로 부임하였다. 1918년 실음병(목소리가 나지 않는 병)이 발생하여 사직했다. 1920년에는 전남 노회 노회장에, 그 해 10월에는 제9회 총회 때 부총회장, 그 다음해인 1921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제10회 총회 때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85) 姜文昊, 文泰善, 『濟州宣敎 70年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8), 32.

86) 류정길, 『제주성안교회100년사』 (서울: 맘에드림, 2010), 144.

3	금성교회	제주도 애월읍 금성리	1908
4	삼양교회	제주도 제주읍 삼양리	1908
5	모슬포교회	제주도 대정면 모슬포	1909
6	조천교회	제주도 조천면 조천리	1909
7	용수교회	제주도 한림읍 용수리	1913
8	중문교회	제주도 중문면 중문리	1914
9	한림교회	제주도 한림읍	1915
10	고산교회	제주도 한림읍 고산리	1916

한일합방이 일어난 해인 1910년부터 1912년까지를 제외하고 매년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이기풍 목사의 영혼구원과 민족사랑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4) 이기풍 선교사 제1차 제주선교의 의의

독노회 설립으로 시작된 제주선교는 몇 가지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평양의 사울로 불리던 이기풍이 회심하여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에 파송되어 제주선교를 헌신적으로 감당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이기풍 목사만 사역한 것은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과 후원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동역했지만 그럼에도 이기풍 목사가 제주복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둘째. 노회와 총회차원에서의 지원이다. 한국교회는 노회와 총회차원에서 제주선교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여겼다.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정착은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문을 연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한 영적각성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해외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총회가 주도하던 제주선교가 1913년 전라노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뒤를 이어 받았다. 비록 총회차원에서보다 노회차원의 재정지원이 줄어들어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노회로 이양함으로써 선교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었다.

넷째. 제주선교는 한국인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함으로써 여느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주종관계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었다. 천주교 선교사 주

종관계로 인한 문제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문제들을 한국 개신교의 제주선교는 그런 마찰과 갈등들을 처음부터 줄일 수 있었다.

다섯째. 영적전투가 극심한 제주에서 초기선교의 어려움을 성령의 권능을 통한 신유로 기독교 하나님의 우월성을 선포함으로써 종교성이 많은 제주민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제주에 있는 반 기독교적 정서에 맞서서 기독교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곳에 나타나 영적승리를 민중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⁸⁷⁾

폴 히버트(Paul G. Hiebert)는 선교사가 새로운 문화권 속에 들어갈 때에는 문화충격을 받게 된다고 했다. 문화충격이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갈 때 생기는 불안으로써 어릴 때부터 배워온 모든 문화적인 틀과 지침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할 때 경험하는 방향감각의 상실을 말한다. 문화충격은 언어, 일상의 변화, 관계의 변화에서 찾아와 이해력 상실과 감정과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온다.⁸⁸⁾ 이기풍 목사가 갔던 1908년 당시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이방인의 땅과 같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이기풍 목사로서는 많은 선교장애가 있었다. 이 때 이기풍 목사는 두 가지 영적리더십을 발휘하여 선교어려움을 이겨냈다.

첫째는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이기풍 목사는 혼자하려는 마음자세를 버리고 현지인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선교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선교방법은 지난 날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섬김의 방법이었다. 이기풍 목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결정해서 행동함으로써 현지인 사람들과 동역자들로 부터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로 평가받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의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어릴 때 서당교육을 통해 한학을 공부했고 또 유년시절 일제치하라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이 밀바탕이 되었고, 복음을 영접하고 매서와 조사의 일을 하면서 복음과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도 했다. 이를

87)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85-186.

88) 김영동 외 옮김,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서울: 조이선교회, 1997), 89-99.

통해 그는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쌓을 수 있었고, 평양신학교 입학하여 목사가 됨으로써 한국사회에 새로운 종교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기풍 목사는 선교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총회에 참석해서 그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은 총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는 바람직한 선교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거룩한 삼각관계(Holy Triangle Tension Relationships)를 실현했다. 거룩한 삼각관계란 선교사는 후원교회와 노회의 추천을 받고 선교본부의 파송을 받아 현지 교회(교단)나 선교단체에 받아들여져서, 그 속에서 역동적 유대관계를 갖고 사역하는 것을 말한다.⁸⁹⁾ 제주선교는 이 유기적인 선교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2. 이기풍 목사의 제2차 제주목회(1927년- 1931년)

1) 재부임 배경과 목회활동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를 떠난 지 12년만인 1927년 2월에 다시 제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한국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성내교회의 청빙을 받은 위임목사였다. 교인 200명의 성내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모시기 위해 높은 사례비를 책정했고, 교인들은 이기풍 목사를 모시기 위해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기풍 목사가 재부임하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동안 성내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초빙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사실상 1922년 가을부터 성내교회는 이기풍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⁹⁰⁾ 제직회는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고 이기풍, 곽우영, 임정찬 세 분 중에서 담임목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10월1일(주일)에 교인들

89)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리잡이』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39.

90) 「제주성내교회 제직회록」 (1922년 9월27일, 10월28일),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212에서 재인용.

에게 알렸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이기풍 목사와 교섭하기로 하였다. 성내교회는 이기풍 목사가 올 때까지 이경필 목사가 대신 설교해 주도록 부탁했는데, 이 사실은 아마도 이기풍 목사가 성내교회의 청빙에 대해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이기풍 목사는 순천읍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계속하여 그는 더 어려운 곳을 찾아 1924년 1월 고흥읍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다. 김정복 목사의 사임 후 이기풍 목사는 마침내 성내교회의 청빙에 응하여 1927년 2월2일 성내교회 제2대 위임목사이자 제6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7월31일 위임식을 거행하였다. 이기풍 목사는 성내교회에 부임한 후 교회와 주민들이 하나 되는 모종의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이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1927년 수해를 당하여 아픔을 겪었던 형제자매를 위하여 160원을 구제헌금으로 냈다. 이기풍의 이런 긍정적인 노력에도 2차 제주선교 사역은 1차에 비해 결실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기풍의 2차 제주선교 재임 기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1930년 제주노회가 전남노회에서 독립한 것이다. 19회 총회는 제주노회 분립청원을 받고 명칭을 “제주노회”로, 노회 조직 장소는 “제주 서문교회”에서, 시일은 1930년 11월 이내로, 제주노회 조직 노회장은 최홍종씨로 하고 “제반 문무는 전남노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재정은 전남노회가 청원한 대로 3분의 2는 전남노회가 맡고, 3분의 1은 제주노회가 감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남노회 선교사 가운데 1명을 제주노회 언권 회원으로 세우는 것도 허락했다.⁹¹⁾

총회의 결정에 따라 1930년 11월 14일 서문교회(성내)에서 역사적인 제주노회가 조직되었다. 노회장은 최홍종, 부노회장에 김재선, 서기에 이도종, 회계에 김재원이 피선되었다.⁹²⁾

재부임한 이기풍 목사의 목회활동은 1차 제주도 선교활동 때와는 사뭇 달랐다. 이 시기 목회활동의 방향은 이기풍 목사가 전남노회에 올린 친필 「성내교회보고서」에 의하면 기도훈련, 성경교육, 그리고 전도가 중심이었다.⁹³⁾

91) 「제19회 총회록」(1930), 34.

92) 「기독신보」(1930년 12월 17일),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327에서 재인용.

성안교회는 1953년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여파로 제주성내교회는 기독교장로회 서부교회와 예수교장로회 서부교회로 나뉘었다. 이후 기장 서부교회는 성내교회로, 예장 서부교회는 성안교회로 성장하였다. 성안교회는 교회설립 87주년 행사를 위해 고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기풍 목사가 1928년 6월 5일자로 전남노회에 보고한 친필보고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보고서엔 당시의 성내교회 상황과 이기풍 목사의 목회활동이 비교적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기풍 목사는 여러 형태의 기도를 장려했다. 개인기도는 물론 가정기도회, 연합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 그리고 금요 구역기도회 등을 독려하여 기도를 생활화하도록 훈련시켰다.

둘째. 성경공부를 장려했다. 설교만으로는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주일 성경월보를 통해 교육했고 교인들에게 성경통신과를 적극 권장했다. 일정기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사경회를 개최하는 일도 계속했다.

셋째.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개인전도, 부흥전도, 여전도인을 통한 전도, 그리고 전교인이 함께하는 총동원전도 등 다채로웠다.⁹⁴⁾

이기풍 목사는 이런 목회활동을 통해 제주성내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제주도 선교를 지원하며, 현지교인을 지도자로 세워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⁹⁵⁾

2) 성내교회와 제주도 선교

이기풍 목사의 목회활동은 몇 가지 점에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확장된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유치원교육의 활성화였다. 1920년대 후반에 교회가 운영하던 소학교들이 여기저기 설립함으로 점차 퇴조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교회들은 유아

93) 이기풍, 「성내교회 보고서」(1928년 6월5일),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213에서 재인용.

94) 위의 책, 213.

95)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214.

교육을 위한 유치원들을 설립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힘썼다. 이기풍 목사는 전임자 김정복 목사가 1924년 4월13일 설립한 유치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성내교회의 중앙유치원은 제주도 유치원의 효시다. 1924년 개원 당시에는 1학급에 교사가 1명, 원생 수가 남자 12명, 여자 18명으로 30명이었지만 1927년 당시에는 교사가 2명이고 남자 19명, 여자 22명 도합 41명으로 도내의 호응도도 비교적 높았다. 중앙유치원은 제주도 개신교계 교육활동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⁹⁶⁾

둘째는 기독교청년면려회⁹⁷⁾ 활동을 지원하면서 제주도 기독교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자 했다. 이는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였다. 그러나 이 일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자신의 위치가 성내교회 담임목사였다는 점도 있었으나 이기풍 목사는 전도목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면서 현지교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고자 했다. 청년면려회의 조직은 제주와 중앙을 연결하고 다른 지역의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 제주의 청년들의 영적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각 교회 면려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1931년 10월18일 성내교회에서 제주도 내 9개 청년면려회 대표들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기독교청년면려회연합회”가 창립되었다.⁹⁸⁾

셋째 여전도회의 전신인 부인조력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부인조력회를 창립⁹⁹⁾한 쉐핑 선교사는 1928년 전국연합회¹⁰⁰⁾ 조직에 앞서 1925년 8월 제주도를 방문하여 성내교회에서 부인조력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쉐핑 선교사는 제

9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 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제주교육박물관, 2011), 107.

97) 기독교청년면려회(The Christian Endeavor Union CE)는 3.1운동 반발 2년 후 19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장로교 교단 내의 청년운동이었다. 1921년 제10회 장로회총회는 청년면려회를 교회마다 설립할 것을 결의했고 1929년에 열린 총회는 매년 2월 첫 주일을 면려회주일로 결정하여 실시토록 규정했다.

98) 「기독교신보」 (1931년 12월 9일)

99) 한국에서 부인조력회는 1922년 12월22일 쉐핑 선교사 자택에서 창립되었다. 이것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 배경은 1920년 미국장로교 부인조력회 회장 W.C. 윈스보로가 쉐핑에게 한국에서도 부인조력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해서 이뤄졌다. 이순례, 『한일신학대학70년사』 (완주군: 전주한일신학대학, 1994), 246.

100) 쉐핑 선교사는 1927년 제16회 총회에서 부인전도회 조직 설립청원서를 제출하여 장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192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연합대회’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순례, 위의 책, 247.

주도의 여러 교회에서 부인조력회를 조직하고 부흥회를 인도했다.

엘리자베스 쉐핑(한국명: 서사평, 1880-1934)선교사는 1912년 내한하여 1934년에 전남 광주의 선교지에서 죽기까지 한국교회에 헌신한 미국 남장로교의 여성선교사이다. 부인조력회는 오늘날 여전도회의 모체가 된 조직으로, 쉐핑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시도되고 한국적인 형태로 조직화되어 발전되었다. 쉐핑의 선교는 삶과 유리된 도그마적 선교가 아닌 삶을 통해 메시지가 드러나는 전인격적, 성육신적 선교였다. 소위 높고, 구별된 자리에 머물며 서양 중심적, 제국주의적, 온정주의적 선교가 아닌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일치를 통하여 한국적이며 한국인화한 토착적 선교였다. '작은 예수' 라는 이름처럼 자신을 헌신하여 그리스도를 온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갔던 십자가적 선교였다. 쉐핑이 설립한 이일학교는 쉐핑의 통전적 선교를 가능케 하였던 중심기관으로서 곤궁한 처지에 놓여있는 여성들을 구제하여 교육(성경 및 일반교육)을 통해 전도자의 성경교사, 기독교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주일학교사역과 여성조력회 운동에 투입하여 전도와 주일학교를 전개하였다. 그럼으로써 이일학교 출신들이 한국교회의 전도부인과 여자교역자, 여성 지도자들로서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¹⁰¹⁾

이기풍 목사가 성내교회에 재직할 당시 부인전도회가 활성화 되었는데 부인전도회는 오랜 유교사회에서 종속적이던 여성의 위치를 위로 끌어 올림으로써 한국 여권신장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¹⁰²⁾

넷째 사회봉사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당시 교회재정이 어려워서 교회 부설 사숙을 정지하고 유치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내교회는 지난해(1927년) 수해를 당하여 아픔을 겪었던 형제자매를 위하여 160여 원을 구제헌금으로 냈다.¹⁰³⁾ 당시 쌀 한가마니에 6원임을 감안하면 큰 금액의 봉사였다. 이는 박애정신의 발휘였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로서의 모습이였다.¹⁰⁴⁾

101) 최영근, “미국 남장로교 여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의 통전적 선교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권 (2012), 231-261.

102) 최순신, 『여전도회80년사』 (제주: 제주노회 여전도연합회, 2008), 54.

103) 이기풍, 「서문교회 보고서」 (1928년 6월 5일), 박용규, 『제주교회사』, 325에서 재인용.

104)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미간행 박사

3.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 1, 2차 활동 비교

이기풍 목사의 제주도 1, 2차 활동은 먼저는 직함부터 달랐다. 1차는 독노회에서 파송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입장이었다면 2차는 성내교회의 담임목사로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비교하면 1차는 선교활동, 그리고 2차는 목회활동 중심이었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 1차 활동은 1908년부터 1915년까지 선교사로서 제주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2차 활동인 1927년부터 1931년까지는 성내교회 담임목사로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둘째. 1차 활동은 현지인에게 희생적인 선교사로서 현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면, 2차 목회활동은 교회성장과 교인들의 신앙성숙을 돌보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소통하는 일을 모색하였다.

셋째. 1차 활동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면, 2차 활동은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물러섬의 미덕'과 '낮아짐의 영성'으로 사역의 초점을 바꾸었다.

넷째. 현지인의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면서 제주노회 설립이 현지인들의 실질적 자치기구가 되도록 도왔다.

이기풍 목사는 그때 그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은 선교의 효과적인 것인지를 알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기풍 목사는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했다. 이로써 한국의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성내교회는 자립, 자전, 자치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216.

4. 이기풍 목사의 선교와 신학

이기풍 목사의 신학과 사상은 그가 자라온 사회적인 배경과 환경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기풍 목사가 자라 온 환경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당시는 조선왕조가 종말로 치닫는 시기여서 관료들의 부정부패, 그로인한 민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여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지만 조정은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시대 상황은 그의 인격형성과 신학과 사상에 지대한 역할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설교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몇 편의 설교를 통해 이기풍 목사의 신학과 사상을 살펴보려 한다.

이기풍 목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주셨다고 했다.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에 그 뜻은 크고, 그 사랑을 깊고, 그 효능은 확실한 것이다. 이기풍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그의 삶을 통해 실현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만물과 동물들에게 단장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은 별거벗은 몸인데 무슨 단장을 보시고 좋다 하셨을 것입니까. 천지와 모든 동물과 같이 외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의 숨은 단장, 즉 지혜와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단장은 물질적 단장과 무형적 단장과 자연적 단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인들의 단장만 경계하신 듯하나, 이사야 3장18-23절까지 보면 남자들의 단장도 경계하였습니다. 육신을 치장하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 즉 영혼을 더 단장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나 우리 교회가 단장한 신부 같이 세상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단장 아니 하고 외양만 단장한 자는 회칠한 무덤 같다” 하셨습니다. 진열장에 사람이 만들어 세운 사람의 외양은 사람 같으나 속사람은 없습니다. 청루집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외모의 단장은 매우 훌륭하나 속사람은 모든 죄악으로 단장하여 있습니다(롬1;29-32)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조성을 입은 새 사람이 되면 천연적으로 된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9-10절을 보면 새로 조성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볼 수 없는 신으로 말미암아 조성한 자가 되면 꽃과 같이 천연적으로 단장을 입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이 때부터 늙도록 온유하고 단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면 매우 흠모됩니다. 우리는 이같은 천성을 타고나지 못하였으나 무형한 신의 조성자가 됩시다.

우리는 이 세상 단장과 같이 벗을 단장이 아니요 영원히 벗지 못할 단장을 입읍시다. 우리는 속사람의 단장을 항상 입고 있다가 우리 주 예수, 즉 우리의 신랑이 오심을 맞읍시다.¹⁰⁵⁾

이기풍 목사의 「단장(端裝)」이라는 짧은 이 설교 안에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이 들어있다. 이는 어쩌면 자신의 삶을 통해 터득한 거듭남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더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이기풍 목사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전념하였고 이것이 그의 선교핵심이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지름길이며 핵심적인 길이다. 이기풍 목사의 선교가 능력 있게 전개되었던 가장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핵심적인 일에 전념하였기 때문이다. 이기풍 목사의 선교의 주된 목적은 영혼구원에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의 희생적인 열정은 선교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의 이런 열정으로 많은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를 통해 선구자적인 실천신학의 특징이 있지만 제주인의 역사와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과 함께 이루어야 할 사회참여에는 다소 부족함을 보여 후에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를 평가할 때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이기풍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산 소망」을 주신 것으로부터 찾았다. 성도는 영원한 소망에 절대가치를 두고 살기에 잠시 겪는 고난을 거뜰히 이기고,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성도가 품는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다.

산 소망의 시작은 우리의 중생이다. 산 소망이 장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

105)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서회, 2008), 213.

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능력은 현재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여 우리를 중생하게 하사 새 사람을 지었다. 우리의 외양은 변함이 없고 또 불신자는 우리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지만 나는 현저히 변화하였다.

나의 인생관, 나의 사상, 나의 목적이 변할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며, 내가 죄인이지만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 것을 진실로 느끼고 기뻐한다. 처음이 없으면 어찌 나중에 있으며, 시작이 없으면 어찌 성취함이 있겠느냐, 우리의 안전한 구원은 중생에서 비롯된다.

중생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종기 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영리한 의사는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로 달래어 익숙해지면, 아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취약을 코에 쏘여 잠들게 한 후 수술을 행하여 종기를 완치함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신은 수술을 행하여 중생케 하신 것이다. 중생의 때와 곳과 형편을 알지 못하나 그 결과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그 결과를 받은 자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것을 성취하실 줄 확실히 믿는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부활, 우리의 중생(성신의 사역)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선 소망이야말로 산 소망이 아닌가?¹⁰⁶⁾

이기풍 목사는 「산 소망(所望)」의 신앙을 가지게 함으로 권리보다 의무에 최선을 다해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땅에서는 물론 장차 임할 천국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의 정확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했다. 결국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라는 일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제주 지역의 자생적인 신앙공동체를 포용하여 기독교로 승화시켰고, 이를 통해 제주교회가 제주노회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는 성도는 썩어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106) 위의 책, 229.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구원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유혹과 욕심에 이끌리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단이 있다. 우리에게 원망이나 슬픔, 불평, 미움, 시기, 불신앙의 마음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 발생적일 수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들의 힘으로 막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성품과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의해 성도는 의로워지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오늘 문제인 '새로운 사람' 즉 어떤 사람을 '신인(新人)'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가 변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다 할지라도 별로 그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뢰한다는 태도로 변화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새로 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 신자가 되느냐 하면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진리를 말하며, 셋째는 누추한 말을 하지 않으며, 넷째는 빈자에게 베풀기 위하여 착한 생업을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성신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며, 여섯째는 인자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분심(忿心)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며 날이 지도록 분심을 품지 말라 아무리 새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 신자가 될지라도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까. 노하지 말라고 쓰지 않고 노하여도 죄를 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날이 지도록 품지 말라 한 것은 밤까지 성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모욕을 보였다든지 나의 가정에 모욕을 보였다든지 어떤 때에 부정불의(不正不義)를 행하였다 하는 때는 그리스도 신자는 노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의(義)로운 분심(忿心)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¹⁰⁷⁾

이기풍 목사의 신앙은 3·1운동을 지나면서 제주도 현지인들에게 기독교는 신뢰할 만한 종교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고, 현지인들의 신앙을 민족의식으로

107) 위의 책, 218.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게 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는 새 사람을 입게 하는 분의심을 강조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지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초월적인 신앙의 메시지를 주었다. 어찌면 이런 이기풍 목사의 초월적인 신앙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 받는 과정에서 준비과정 없는 열정만으로 뛰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요즘 선교사역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선교는 적다는 말들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기풍 목사의 자원하는 신앙, 내려놓는 신앙, 충의 신앙은 결국 희생적인 열정의 신학과 공격적인 신학, 그리고 자생적 신앙공동체와 함께하는 신학으로 발전하여 현지교인들의 선교로 승화시키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할 수 있다.

V.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에 대한 평가

이기풍 선교사의 선교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시대 현장에 있지 않았고, 또 당시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들을 자료들을 통해서만 어렵듯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과 학자들의 말을 통해 그리고 제주선교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1. 제주선교에 나타난 부정적인 평가

1) 준비가 없는 선교

독노회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안고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준비과정에서 제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가 평양장로회신학교 제1회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7인의 목사들 중 다른 6명의 목사는 “전도목사”라는 칭호로 각 지방에 파송되었지만 이기풍만 목사는 “선교사”라는 칭호로 제주도에 파송되었다.

제주도는 우리 국토의 한 부분이지만 오랫동안 “탐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독립국 행세를 해 온 독특한 지역이다, 언어와 풍속도 본토와 다르고 또 아직까지 천주교 박해사건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아 위험한 지대이므로 그러한 칭호를 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⁸⁾ 그러나 선교를 위해 준비과정의 기간을 가졌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서양 선교사들이나 오늘 한국교회에서 세계각지로 파송하는 선교사들은 수개월 혹은 수년의 선교사 훈련이나 언어와 같은 문화적인 교육을 받은 후 파송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기풍 목사의 경우에는 그런 준비과정 없이 열정만으로 시작했다. 그런 열정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고난은 미리 예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기풍 목사는 1908년 2월 선교사의 자격으로 제

108)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2』 (서울: 기독교서회, 2008), 185-257.

주도에 입도할 당시 현지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를 지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의 신학은 “보수적이며 칼빈주의적 신학노선에 있었던 서양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영감과 권위를 확신하면서 동시에 부흥운동에 열려있는 열정적인 복음주의자”였다. 이들은 선교의 주된 목적을 먼 이교도 지역에 가서 영혼구원 하는데 있었기에 이기풍 목사는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에서 나온 선교방법으로 교회개척과 의료, 교육, 사회구제 사역 등 다양한 구상을 하였을 것이다.¹⁰⁹⁾

이런 점에서 제주도에서 이기풍 목사와 현지인의 만남은 두면의 성격을 가졌다 할 수 있다. 자생적 신앙공동체와의 만남이 그 하나이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 현지인들과의 만남이 다른 하나라 할 수 있다. 자생적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선교활동에 힘을 얻었고, 현지인들과의 접촉에서는 서양 종교를 신봉하는 선교사라는 이유로 극심한 반대를 받아서 복음전도라는 큰 장벽에 부딪혔다.¹¹⁰⁾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해 부족으로 현지인들의 핍박이 더욱 심했을 것이다.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신중한 마음과 자세로 제주 선교 사역을 시작 했더라면 더 효과적으로 선교활동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주도에 대한 문화이해 부족

제주도에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으나, 이기풍 목사가 취한 자세는 “외지인의 입장”으로 바라본 제주도였다. 그는 여전히 육지에서 보낸 것을 받은 한국장로교회의 ‘과송인’이었다. 현지인의 입장에서는 문화로 보였던 것이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야만인으로 보였고, 이로 인해 모욕감이 들었을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선교사는 지역문화에 대한 무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기풍 사모가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 사람들은 사모에 대해 “귀신 닮았

109)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265.

110) 위의 책, 265.

다” 라고 놀렸다¹¹¹⁾. 이 말은 “참 이쁘다” 는 뜻이다. 또한 이기풍 목사가 걸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하면 마치 음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손을 흔들며 “설러버려 설러버려 야가기 끊어지겐” 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무척 어려웠다¹¹²⁾고 한다. 이렇게 겁에 질려 도망친 이유는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를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에 천주학을 하면 잡혀가서 죽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파송되었을 때 육지와 다른 진기한 풍속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기풍 목사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제주도의 풍속들은 육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토착전통에 기반한 현지인들의 문화였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에게도 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진리가 현장에 적용될 때에는 각 지역과 사람에게 맞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신앙공동체의 삶과 문화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³⁾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선교에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동안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선교적인 인식과 관찰자적 입장을 가지고서 현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제주도 풍속 소개 사건으로 인해 이기풍 목사는 선교사로서의 분명한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즉 성육신적인 선교사로 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¹¹⁴⁾ 이제 현지인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후 이기풍 목사의 선교방법은 그들을 세우는 사랑의 선교였다.

3) 교회의 사회참여 부족

111) 이사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서울: 기독교문서, 1999), 61.

112) 위의 책, 61.

113) 안승오, 『선교사가 그린 선교사 바울의 생애』 (서울: 콤파출판사, 2002), 120.

114)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266.

제주선교가 이루어 온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봉사 부분이 너무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선교초기에는 문맹퇴치 운동과 애국심을 기르고 교회를 통하여 군자금 모금운동이 이루어지는 등 교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제주선교의 가장 최우선 과제를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세 확장하는데 힘을 기울임으로 지나치게 전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많은 지역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자립교회의 증가로 교회의 유지에만 힘을 기울인 반면 제주인의 역사와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복음과 함께 이루어야 할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것이 이기풍 목사의 1차 제주선교의 모습이었지만 2차 제주 목회 때는 이를 보완하여 교회가 사회 참여하는데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에는 항상 복음과 함께 의료, 교육이 병행되어졌다. 서양 선교사들이 중점적으로 선교했던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선교정책이 잘 활용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기풍 목사를 비롯한 후속 선교사들도 이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또한 총회에서도 병원이나 학교설립 같은 선교와 병행이 되는 기관을 세우는데 관심을 쏟지 못하였다. 1970년 기독교 연감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기독교 학교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는데 그 가운데 제주도에는 기독교 학교가 전무함이 그 사실을 알게 한다.¹¹⁵⁾

<표 6> 1970년 기준 기독교 학교들

시,도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중,고등	26	11	16	3	2	14	9	11	12	3	0	107
대학	7	3	0	2	0	2	0	0	3	2	0	17

이처럼 제주도에 그토록 많은 학교가 있지만 미션스쿨이 하나도 없으며 또한 기독교 관련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주선교가 단순히 개인 영혼구원

115) 한관용, “제주지역에 있어서의 기독교 선교환경과 선교전략”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7), 89.

에 집중된 선교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2. 제주선교에 나타난 긍정적인 평가

1) 독립된 제주노회로 성장

제주노회는 1930년 6월 전남노회의 결의와 그해 9월 제19회 총회의 승인으로 1930년 11월14일 성내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제1회 제주노회에서 이기풍 목사는 원로로서 전면에서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제주노회의 설립은 현지인 자생적 신앙공동체에서 시작 된지 26년 만에, 그리고 한국장로교회 독노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지 22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였다.

제주교회는 한국에 개신교가 전래되던 시기에 형성된 여러 자생적 신앙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현지인이 받아들인 기독교로 제주도에서 성장하였다. 이제 나름대로의 역사적 배경과 토착 문화전통의 여러 요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성장한 제주도 교회는 자신들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세계교회를 더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을 제공하게 되었다.¹¹⁶⁾

이기풍 목사의 선교사역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사람의 생활수준을 올리거나, 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거나, 세상 지식을 나누어주거나, 의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웠다. 물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그와 같은 도움이 후에 결과적으로 주어지기는 하였지만 이기풍 목사의 초기 선교사역의 핵심은 교회설립이었다. 그렇다고 사회관계나 육신적인 일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 희생적인 선교의 본

이기풍 목사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순회하는 동안에 농촌 일을 도왔다. 일

116)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246.

하기 쉬운 옷을 항상 준비하여 있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며칠씩 함께 머물면서 일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거하며 얼굴을 익히고 친숙해졌다. 이렇게 하여 서로 허물이 없어지게 되면 기독교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전도할 수 있었다.¹¹⁷⁾

또 제주도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한 여름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넷물이 넘치면서 윗 지방의 초막이나, 짐승, 심지어는 사람까지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 왔다. 이기풍 목사는 상황을 바라보다가 급류에 휘말린 다섯 사람을 구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았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¹¹⁸⁾

3) 하나님 선교로서의 성장

제주선교의 초기사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기풍 목사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동역자들의 기도와 함께 여러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로 인해

첫째는 여성들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 이기풍 목사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여는 것과 동시에 여성 전도인을 제주도에 내려오도록 하였다. 제2회 독노회는 여전도인 파송을 결의하였고, 1908년 평양여전도회에서 이선광(李善光) 여전도인을 제주도에 파송하였다. 그녀는 20여 년간 현지인과 함께 제주 기독교에 마중물이 되었다.

둘째는 현지교인들과 육지 전도인들의 협력선교를 이루었다. 이기풍 목사는 육지의 전도자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였고 현지교인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제주 초기선교를 어려운 가운데 잘 감당하였다. 제주선교는 한국교회의 팀 사역의 중요한 본이 되었다. 윤산온(G. S. McCune, 尹山濶)선교사는 한국교회의 이런 팀 사역에 대해, 한국교회는 목회자 선교사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전도 부인, 전도인, 권서인들을 파송하고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교의 최대효과를 도모했다고 하였다.¹¹⁹⁾

117) 이사례, 『순교보』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2007), 58-59.

118) 위의 책, 59.

셋째 제주선교는 엄밀히 따지면 내지선교에 속하였지만 한국교회에 해외선교열을 강하게 불어넣은 전기를 마련했다. 제주선교에 이어서 1908년에는 일본선교, 1909년에는 시베리아 선교, 그리고 1912년 첫 총회가 조직된 후에는 중국 산둥성 선교 사업을 착수했다. 해외선교는 한국기독교가 세계를 경험하고 세계를 위해 봉사하며, 더 성숙한 기독교로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천 년대에 들어서서 1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¹²⁰⁾ 비록 제주선교는 내지선교에 속하지만 한국교회에 해외선교열을 강하게 불어넣는 전기가 되었다.

4) 자생적 교회로서의 모델

타 지역과는 달리 제주선교는 처음부터 서양선교사들의 역할이나 관할이 배제되었다. ‘교계 예양협정’에서 전라도 지역이 미국 남장로회의 선교관할 지역으로 배정되고, 제주선교나 치리의 주된 연결구도가 전라지역의 장로교회에 연계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개신교 선교 관할도 미국 남장로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관할권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제주도의 문화적 풍토로 볼 때 자국민들로 인한 선교활동이 더 큰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선교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¹²¹⁾

119) George McCune, "The Third Annual Meeting of Korea Presbytery", *The Korea Mission Field*, January, 1910, Vol. VI. 19, 류정길, 『제주성안교회100년사 1908-2008』, 105에서 재인용.

120)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Ⅲ』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143.

121)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년10월), 182.

VI. 결 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12년 9월1일에 설립되었는데 갑자기 설립된 것이 아니라 20여 년에 걸친 그 이전의 상회들, 선교사공의회,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그리고 독노회를 계승 발전한 기구이다. 특별히 총회는 독노회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장로교회 정치체제를 완성하였다.

독노회는 단순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탄생 뿐 아니라 한국장로교회의 교리적, 정치적, 교회법적 존재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노회 기간 동안에 노회가 행한 일들 가운데 핵심은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제1회 노회에서 전도국을 설치하고 가장 먼저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 일이었다. 계속해서 제2회에서는 제주도에 여성 교인들을 위하여 여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의논하고, 이후 1909년 제3회 노회에서는 평양성교회 여전도회에서 연보하여 이선광을 제주 여전도인으로 파송하고 뿐만 아니라 평양대중학교 학생들이 연보하여 대학생 김형재를 제주 전도인으로 4개월간 파송하였으며,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 최관홀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동경의 조선 유학생들을 위하여 한석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3개월간 전도하게 하였다. 이후 박영일 장로가 동경에 파송되었으며 1911년에는 박중순 장로를 일본유학생 전도인으로 파송하였다. 이처럼 한국장로교회는 독노회를 설립과 동시에 꾸준히 각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기선교 정책이 오늘 한국교회가 선교대국으로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기풍 목사의 목회관의 첫출발은 그의 삶의 여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의 무인기질로 인하여 진취적이며 도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출신지역과는 전혀 다른 무연고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 이러한 결단과 결행은 사명에 대한 소명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쉽고 편한 길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원하는 희생자였다.

제주선교는 엄밀히 따지면 내지선교에 속하였지만 한국교회에 해외 선교열을 강하게 불어넣은 전기를 마련했다. 해외선교는 한국기독교가 세계를 경험

하고 세계를 위해 봉사하며, 더 성숙한 기독교로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에 기인하여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에 그 뜻은 크고, 그 사랑을 깊고, 그 효능은 확실한 것이다. 이기풍 목사는 그의 삶을 통해 이를 확신했다.

이기풍 목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 터득한 거듭남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더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선교에 전념하였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의 선교의 주된 목적은 영혼구원에 있었으며 그 열정이 선교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는 1832년 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받은 복음의 빛진 민족이다. 복음의 빛진 한국교회는 복음을 빛을 갠으려는 선교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그 시작이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이다. 그러므로 제주선교는 한국교회에 주춧돌을 놓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영역은 온 세상이다. 교회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교회사역 전체를 선교라 할 수 있다.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샬롬의 추구하고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인간구원과 사회구원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배제됨이 없어야 올바른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하나마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이기풍 목사의 업적은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들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그 일에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기풍 선교는 철저한 내세지향적인 신학이 바탕이 된 영혼구원에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양적성장에 치중하기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면, 내실 있는 교회,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게 된다.

제주도의 개신교 역사는 1904년 현지인 김재원에 의해 자생적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 예배와 선교활동이 전채되었지만 미비한 수준에 그쳤지만 1908년 2월 독노회 파송 이기풍 목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독교가 제주도에 전파되기 시작되었다.

복음은 기독교인들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보여준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무엇이다. 복음은 기독교인들이 건설해 놓은 교회와 신학,

의례와 믿음의 지평선 저 너머를 가리킨다. “복음의 빛”에 비취볼 때 한국기독교의 과거는 많은 부족함을 드러냈다. 그 한계를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마주할 것인가가 오늘의 과제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의 지평은 넓어질 것이다. 그 넓어지는 지평을 향해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가에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있다.¹²²⁾

이기풍 목사의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이 그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서 한국을 뛰어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선교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122) 위의 책, 268.

[참고문헌]

1차 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록』, 1908.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록』, 1911.

『제1회 총회록』, 1912.

『제2회 총회록』, 1913.

『제19회 총회록』, 1930.

이기풍. “단장(端裝).”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문사, 2008.

_____. “신조(神造)의 인(人).”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문사, 2008.

_____. “산 소망(所望).”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문사, 2008.

2차 자료

姜文昊, 文泰善. 『濟州宣敎 70年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8.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김영동 외 율김.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서울: 죠이선교출판부, 1997.

김수진, 차종순, 정성한, 임희국, 탁지일. 『장로교최초목사7인리더십』. 서울: 쿤란출판사, 2010.

김태혁. 『濟州敎育史』. 제주: 제주도교육청, 1999.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13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4.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게자씨社 編. “조선교회 초대 칠목사.” 『게자씨』 제6권 제6호 통권제70 (1937.6), 19-2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80주년기념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 류승남.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1998.
- 류정길, 『제주성안교회100년사 1908-2008』. 서울: 맘에드림, 2010.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신개정판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출판사, 2002.
-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 _____.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출판사, 2007.
- _____. “초기 한국장로교 해외선교.” 「신학지남」 제71권1집 통권 제278호(2004 봄), 83-108.
- _____. “제주선교100년 그 역사와 의미.” 「신학지남」 제75권1집 통권 제295호 (2008년 여름), 204-241.
-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 제39호 (2013년9월), 181-208.
- _____.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1904-1930.”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 변창욱. “한국장로교회 선교사 파송100년.” 「선교와 신학」 제19집 (2007년 봄), 13-65.
- 박인찬. “이기풍 선교사의 리더십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2.
- 송정훈. “이기풍선교사가 제주선교에 미친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01.
- 서성환. 『제주선교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년10월), 173-191.
- 안승오. 『선교사가 그린 선교사 바울의 생애』. 서울: 콤파출판사, 2002.
- 아브라함병욱. “선교문화방법으로 본 이기풍의 선교평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2009.
-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문사, 2008.
- _____. 『순교보』.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2007.
- _____.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서울: 기독교문서, 1999.

- 이순례. 『한일신학대학70년사』. 완주군: 전주한일신학대학, 1994.
- 이광순·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1.
- 이경윤. 『백인백번의 인내』. 서울: 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11.
- 이만열. 『한국기독교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2』. 서울: 기독교서회, 2008,
- 정은렬. “통전적 선교신학에서 바라본 제주선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교신학대학교, 199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 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제주교육박물관, 2011.
- 차중순. 『제주성안교회 90년사』. 서울: 쿤란출판사, 1997.
- _____. “이기풍목사의 생애와 사역/ 초기의 논란점을 중심으로.” 『신학이해』 15 (1997월 9), 215-238.
- 최순신. 『여전도회80년사』. 제주: 제주노회 여전도연합회, 2008.
- 최영근. “미국 남장로교 여선교사 엘리지베스 쉐핑의 통전적 선교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권 (2012), 231-261.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Ⅲ』.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 황재범·김진수·박남규·오주철·윤은수·이경화·이재열. 『초기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 한경호.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 서울: 지상사, 2009.
- 한관용. “제주지역에 있어서의 기독교 선교환경과 선교전략.”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7.